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1주일
제33권 1호(다해) 2012.12.2

[묵상]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
삶은 온통 기다림이다.
인생에서 기다림을 들어내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무엇이 오기를
무엇을 가지기를
무엇이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은 온통 기다림이다.

주님은
신앙인의 기다림이다.
기다림이 삶이고 의미이기에
신앙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을 만들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대림은 신앙인의 삶이고 의미이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견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주정에 & 김재철, 홍관 요셉
특전미사	(생)김행선 올리아나, 이은지 수산나 & 이상용 엘리야 & 김기연 제니
주 일 낮 미사	(연)주용범 아브라함, 이진행 힐라리오, 조순섭 카타리나, 송봉규 요셉 & 송광량 카타리나, 이정희, 한창수 시몬, 전시웅 요한,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민소예 모니카, 유병옥 아브라함 (생)박채울 레오, 김지인 에우제니오 & 김재익 야고보, 김재민 안드레아, 김앤다 안드레아, 김영길 안드레아 가정, 이재용 안드레아, 차인수 안드레아, 정연영 크리스티나, 이운조 글라라, 김병무 후고, 이남호,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 베로니카 & 길영 가정 토런스 동구역 가정들, 토런스 북구역가정들, 백삼위 M.E.가정,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33,14-16

화답송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 리 나 이 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제 2독서 데살로니카 1서(1Thessalonians) 3,12-4,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 음 루카(Luke)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3	124	124
봉헌	364	255	255
성체	교백	292	292
파견	그사랑 야훼께	123	12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더욱 온전한 전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과 구체적 제의들

마) 전례에서 성경 본문들의 배타성

“영성이나 문학의 어떤 본문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는 가치와 풍요로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랜 규정으로서, 지금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몇 남용
들에 대하여 이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성경을 다른 독
서로 대체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화
답송도 하느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의 목소리
에 응답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본문들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화답송을 노래로 하는 것
은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바) 성경으로 감도된 성가

70). 전례 거행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고유한 전례에 규정된 순간들에 부르는 노래
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말과 음악의 조화로운 일치
를 통하여 하느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성가들을 장려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
에 부합되는 노래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특
별히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 시각,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71).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개인적
조건들 때문에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
진 이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과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특
별한 배려를 권고했다는 점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도구들을 배려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말씀
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만남

72). 전례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기념하기 위한 탁
월한 장소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만남이 신자들의 마
음 안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자들에 의하여 심화
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우리
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특징으로 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면?

교회는 대림 제1주일과 함께 새로운 한 해의 전례주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고하면서 오늘 복음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덴 처음 예수님을 본 어떤 자매님은 당황하여 사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막 성당마당에 들어서시잖아요.”

본당 신부님은 깜짝 놀라 주교님에게 열른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 어떡하죠? 예수님이 우리 본당에 오셨는데...”

그러자 주교님께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교황청에 전화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쁜 척 하시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금 이야기처럼 바쁜 척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릴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날을 예고하시면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고 선언하십니다. ‘속량’이란 몸값을 지급하고 노예나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속량’은 온갖 형태로 하느님 백성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하느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은 ‘속량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심 때문에 방탕해지고,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희망으로 자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주십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가 구세주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 기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어무름...

“세계 역사는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랑 간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세상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자아 포기까지 이르게 한다.” - 성아우구스티노 -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송현식 바오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아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1주일
(다해)**

오늘은 대림 제1주일,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대림(待臨)'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다해'의 전례주기를 따르며, 첫번째 대림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 ◆ 병자 영성체 : 12월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12월6일(목) 저녁미사중
- ◆ 성모신심 미사(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 12월8일(토) 오전 8시30분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8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12월 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께선 따로 마련된 흰색 봉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론청년회 펀드레이징 '냉동만두/왕전빵' 판매

- 일시 : 12월1일 토요일특전미사
2일 주일미사후(아침, 학생, 낮)
- 품목 : 냉동만두, 냉동 왕전빵(빨리 매진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청년회장 ☎(310)508-2123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수,목 평일미사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12월 12일(수), 13일(목), 19일(수), 20일(목) 4일간의 저녁미사가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대림특강

- 일시 : 9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오향숙 마우라 본당 수녀님
- 주제 : '기도의 마음 자세'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친목회

- 일시 : 12월9일(주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장소:
- 내용 : '골든벨' 퀴즈대회
- 문의 : 꾸리아단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백삼위본당 구역/제단체 송년행사

한해를 보내면서 전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단체 구역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2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전
- 신청마감 : 12월9일(주일)까지
- 주관 : 사목협의회 회장단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이상철 크리스토퍼 부총무 ☎(310)818-6902

◆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 \$15
- 사무실에서 판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주일학교(4학년 햄버거)
- 12월9일(주일) : PV2반(육개장 \$3)
주일학교(3학년 소고기볶음밥)

지나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관기 김충섭 신중철 이병우 정정현 한길선례	강인모 김병철 남성철 안민수 이석진 조혜정	강태홍 김성현 민형기 오수인 이영석 최기호	권오상 김 용 박완철 윤선희 이형삼 최재은	권태만 김종문 박현주 윤화경 익 명 한혁수	금영도 김찬구 송근섭 이경태 장영진 황인종
합계 : \$5,365						
미사헌금 : \$2,642						

성전헌금	강순복 김관기 민형기 윤선희 익 명 황인종	강인모 김 용 박완철 윤화경 정정현 한길선례	강태홍 김종문 박현주 이경태 조혜정	권오상 김찬구 신중철 이병우 최기호	권태만 김충섭 안민수 이석진 최재은	금영도 남성철 오수인 이형삼 한혁수
합계 : \$2,915						

공지사항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

- 일시 : 12월15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학부모와 일반교우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가톨릭 청소년신앙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3년 1월5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장소 : 가든그로브 수경교회(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예정지)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0(점심포함) * 12월16일까지 신청마감
- 준비물 : 주일학교에서 티셔츠 제공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 주관 : FIAT재단, KCRM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5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5000 Clark Av. Lakewood, CA 90712)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티켓가격 : 부부당 \$150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케냐 6온스 \$10,
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20,
블루마운틴+케냐+콜롬비아 각 6온스 \$50)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컴퓨터조성, 사랑나눔실천, 성전건립 기금
- 문의 : 이나시오 카페 ☎(323)731-4433

◆ 서울대교구 절두산순교성지 주관 '제3회 가톨릭미술공모전'

- 응모자격 : 국적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인자
- 주제 : '하느님의 종 125위'(한국순교자 103위성인 시성식 이후 125위 시복시성 접수 절차대기중)
- 서류접수 : 2013년 7월10일~17일
- 실물접수 : 2013년 8월7일~14일
- 문의 : 주관처 절두산순교성지(www.jeoldusan.or.kr)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gov 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 베이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e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노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마태오 213-675-0498 12/7(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8(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9(주일) 오후 5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인두 토마스 424-241-5988 12/29(토) 오후 5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2/4(화) 10:30 am <u>반미사</u>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오창애 안나 974-2857 12/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담 마르시아 634-6923	임진희 한나 634-6923 12/6(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2/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삼바오로 895-8624 12/9(주일) 오후 7시 토요소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28(금)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4(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안민수 베드로 544-8908 12/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2/15(토) 오후 7시
	4	이귀란 아메스 617-3568	임엘렌 617-3568 1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재단체모임의 날	
----------	--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동산 기슭에 앉아 목주 기도를 바치며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맞이합니다. 30여 년의 습관이지만 하루도 같은 날이 없습니다. 코끝이 얼얼해지는 쌀쌀한 이른 아침 공기가 제 마음과 머리를 세수시키는 듯합니다. 끔찍 단장시킨 나뭇잎을 하나 둘 떠나보내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나무는 감탄할 정도로 끔찍 물든 나뭇잎을 모두 땅으로 돌려보내고 정갈하게 하늘 아래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아직 무슨 미련이 그리 많은지 많은 나뭇잎을 매단 채 조금은 어지럽고 추레하게 서성입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나, 이런저런 물질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편리함을 쫓느라 정신이 버거울 정도로 물질에 둘러싸여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물질을, 편리를 신처럼 떠받들고 살기에 본질에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갈망은 언제나 행복을 찾지만, 늘 허기진 듯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녹아드는 설탕처럼 그렇게 편리와 물질이 오늘의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안에 스며들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무질서하고 추한 미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하느님의 나라를 갈망하라는 초대받는 대림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새깁니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17-20) 물질과 정신이 하나일 수 없음을, 편리와 불편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되새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 금(金) 구유에 놓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교회와 세상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안고 부유를 서로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배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늘 체험하는 것은 편리함을 멀리하고 절제와 극기를 친구로 삼아 생활할 때만큼은 정신이 맑아지고 자연 안에, 사물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겁니다. 맑아진 눈과 귀로 내 마음과 정신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편의의 옷을 조금 더 벗어놓고 절제와 불편함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드뭇게 깨인 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안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신 마리아처럼 성령께서 내 안

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복된 나날을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박대성 바오로 / 한국화가

- 제5회 서울대교구 생명수호주일 메시지(요약) -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그 스스로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전례하는 교향자매 여러분

서울 대교구는 2008년부터 매년 12월 첫 주를 생명수호주일로 정하고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생명수호미사를 봉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생명수호운동의 의지를 다지고 우리 교우들과 선의를 지닌 모든 국민들이 생명수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굴의 신념으로 모든 시대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를 ‘기쁜 소식’으로 전파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1항) 가톨릭 교회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불가침성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그 스스로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생명의 선물 서론 5항)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던 모자보건법 14조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와 생명을 사랑하는 선의의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한 해만 해도 60만 건이나 처방된 응급피임약(조기낙태약)을 올해에는 일반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생명수호담당자 제도가 신설되어 청년들 스스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증거하는 삶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구는 본당 생명분과와 청년생명담당자들이 생명존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생명존중운동의 시작은 기도와 교육입니다. 우리 교구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인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본당의 사목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명교육’과 작은 규모의 단체(레지오, 예비자교리, 자모회 교육 등)를 위한 ‘찾아가는 생명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명분과 위원들을 생명교육교사로 교육하고 양성하여 본당에 파견할 것입니다. 청년생명피정 프로그램인 ‘성-생명-사랑의 길’과 ‘자연출산조절(NFP, Natural Family Planning)’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해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해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서도록 초대된 은총의 시기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우리 시대에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해를 뜻깊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도 감사한 신앙의 해를 지내며 어느 때 보다 우리 안에 생명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